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도자료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등촌로 149 (07671) •전화 : 02-4977-888 •전송 : 02-497-7888 •총 13쪽
•날짜 : 2026년 11월 25일(수) •담당 : 조현제 여성국장(010-9903-6861) •이메일 : kptu2011@gmail.com

<기자회견>

ILO 190호 협약 비준 캠페인

일터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롭게 일할 권리보장하라!

공공운수노조 기자회견

· 일시 : 11월 25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11.25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 맞아 ILO 190호 협약 즉각 비준 촉구 기자회견
- 일터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모든 노동자에게 자유롭게 일할 권리 보장 요구
- 릴레이 1인시위, 온라인 인증샷, 11.28 여성폭력추방행진서 선전전 등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11.25 UN이 지정한 세계여성폭력추방의날을 맞아 11월 25일, 국회 정문 앞 앞에서, ILO 190호 협약 비준을 촉구하며 '모든 노동자가 일터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롭게 일할 노동권 보장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이윤희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의 취지발언을 통해 더 이상 우리의 일터, 삶터에서 우리의 존엄과 평등을 가로막는 젠더폭력과 괴롭힘을 사적인 문제와 갈등으로 치부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을 바꾸는 데 국가와 사용자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도록,

그리하여 일터를 안전하고 평등하고 존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국가-사용자-노동자가 함께 할수 있는 변화의 시작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ILO 190호 협약이 비준될 때까지 법 제개정 사업을 비롯해 대정부 투쟁 등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민주노총 함재규 부위원장은 민주노총 차원으로 △ 사업장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 △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체계에 협약의 원칙 반영 △ 폭력과 괴롭힘 관련 현장의 문제를 노동조합의 요구로 만들고 정부와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고, 철저히 감시하는 등 ILO 제190호 협약의 정신을 노동현장과 일상 속에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석우 희망연대본부 공동본부장은 콜센터 여성 상담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고객 응대'라는 미명 하에 젠더폭력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일터 젠더폭력을 예방하고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 지금 당장 ILO 190호 협약을 비준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현미 서울지역본부 본부장은 일터의 안전은 단지 사고 없이 퇴근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성희롱을 참지 않아도 되는 일터, 폭언과 괴롭힘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일터, 피해를 호소했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지 않는 일터! 그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진정한 일터의 안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승현 사회복지지부 노인생활지원사분회 분회장은 현장에서 대상자의 욕설과 폭언뿐 아니라 성희롱과 성추행을 경험한다며 폭언과 성희롱, 성추행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인권을 보호할 실질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순 의료연대본부 사회서비스지부 인천활동지원기관분회 분회장은 돌봄현장의 젠더폭력과 괴롭힘 실태를 조사하고, 예방교육과 신고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피해 노동자가 불이익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업무 분리와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폭력과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에 대응할 책임을 명확히 해야 이용자의 가정과 같이 사업장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빠짐없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박민정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팀장은 ILO 협약 비준을 추진 중이라는 이재명 정부

의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이라는 과제에서도 ‘일과 연관된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내용의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며 정부가 협약 비준에만 멈추지 말고, 통합적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사업주는 노동자 보호라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 젠더기반 폭력과 괴롭힘을 관리 감축해야 할 일터의 유해위험요인으로 설정 △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일터 내외 안전보건체계를 모든 현장에 구축 △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5인미만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ILO 190호 협약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일터 젠더폭력과 괴롭힘은 중대재해’라며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를 위해 국가와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고 조속한 ILO 190호 협약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11월 23일 월요일부터 2주간 ILO 제190호 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눈 인증샷 운동을 시작으로 11월 25일 11시 국회앞 기자회견, 11월 25일부터 일주일간 국회앞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며 11월 28일 13시 보신각에서 여성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2026여성폭력추방행진’에 참여하여 ILO 제190호 협약 비준 촉구 행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첨부1] 기자회견 개요

- (명칭) 11.25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 기념 ILO 190호 협약 비준 촉구 기자회견
  "모든 노동자에게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롭게 일할 권리 보장하라!"
- (일시) 2026년 11월 25일(수) 11시
- (장소) 국회 정문 앞
- (주최) 공공운수노조
- (식순)

순서	발언자
여는발언	폭력과 괴롭힘은 노동권 인격권의 문제 _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여성위원장
발언	일터 폭력과 괴롭힘은 국가와 사용자의 책임 _ 민주노총 함재규 부위원장/ 성평등위원장
발언	콜센터 상담노동자에 대한 젠더폭력 강요는 이제 그만 _ 김석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공동본부장
발언	ILO 190호 협약 비준, 성희롱을 참지 않아도 되는 일터를 위하여 _ 이현미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발언	폭언과 성희롱, 성추행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_ 유승현 사회복지지부 노인생활지원사분회 분회장
발언	돌봄현장의 젠더폭력과 괴롭힘 예방교육과 신고체계를 강화하라 _ 김기순 의료연대본부 사회서비스지부 인천활동지원기관분회 분회장
발언	'여성폭력이 허용되거나 정당화될 수 있는 변명은 없다' _ 박민정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팀장
발언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일터 안전보건체계를 모든 현장에 구축하라 _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기자회견 이후 국회 정문 앞 선전전 진행 예정.

[발언] 모든 노동자에게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롭게 일할 권리 보장하라!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여성위원장

매년 11월 25일은 UN이 지정한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입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 사회를 촉진하기 위해 지정된 국제 기념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사회적·문화적·제도적 구조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알리고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의 현실은 참담합니다.
2025년 만 명당 20명이 평생 한번 이상의 강간이나 강간미수를, 450명이 성추행을, 760명이 통신매체 이용 피해를 겪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친밀관계 상대자가 불법촬영이나 허위 영상물을 유포한 비율이 과거보다 높아졌고, 강간 및 강간미수는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보다 강요나 속임을 더 많이 사용하며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법제도와 사회 구조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함에도 정부와 국회는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을 맞아 공공운수노조는 ○ 강간죄 '동의' 기준 개정 ○ 가정폭력법을 친밀관계폭력법으로 전면개정 ○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로 성매매처벌법 개정 이 세가지 요구와 더불어 ilo 190호 일의 세계에서 젠더폭력과 괴롭힘 근절 협약 비준 촉구를 전면에 걸고 여성폭력추방행진에 나섭니다.

이 요구는 폭력과 괴롭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와 폭력을 용인하는 문화를 바꾸기 위한 요구입니다. 피해자에게 저항과 회피의 책임을 묻는 사회에서 벗어나 가해자의 폭력과 착취에 책임을 묻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국가의 책무이자 모든 시민이 평등하고 안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공공운수노조는 '모든 노동자에게_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_자유롭게 일할 권리를!'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11/23부터 12/4까지 2주간 190호 협약 비준 촉구 캠페인을 벌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5일간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일터, 삶터에서 우리의 존엄과 평등을 가로막는 젠더폭력과 괴롭힘을 사적인 문제와 갈등으로 치부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을 바꾸는 데 국가와 사용자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도록, 그리하여 일터를 안전하고 평등하고 존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국가-사용자-노동자가 함께 할수 있는 변화의 시작을 만들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노동자가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롭게 일할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평등한 세상,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지는 날까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발언] 폭력과 괴롭힘은 노동권의 문제이며 국가와 사용자의 책임이다!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성평등위원장

신당역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피해자는 스토킹과 협박에 맞서 자신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제도의 문을 두드렸던 여성노동자였습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는 그녀의 절박한 외침에 응답하지도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신고하고 가해자는 재판까지 받고 있었는데 왜 보호받지 못했는가?”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법과 제도에 호소해도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 일터 폭력과 괴롭힘이 그저 개인의 문제처럼 취급되는 구조적 모습이자 질문입니다.

노동자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폭력과 괴롭힘을 견뎌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터를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폭력과 괴롭힘은 개인을 떠난 노동권의 문제이며, 국가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2019년 ILO가 채택한 제190호 협약은 일터에서 폭력과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제시하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이며 젠더반응적인 접근이고 국제사회의 역사적인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분명했습니다.

- 모든 노동자는 폭력과 괴롭힘 없는 일터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파편화시켜 규정되는 모든 노동자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용형태와 일터의 경계가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젠더기반 폭력과 괴롭힘은 구조적 차별의 문제이며 포괄적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폭력과 괴롭힘은 사후 처벌만이 아닌 위험요인의 사전 평가와 예방, 피해자 보호와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모든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의 사각지대 해소와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전면 개정하고 정비하십시오.

민주노총은 ILO 제190호 협약의 정신을 노동현장과 일상 속에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 현장 곳곳 숨어 있는 폭력과 괴롭힘의 실태를 조사하고 찾아낼 것입니다.
- 사업장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예방과 대응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할 것입니다.
- 노동조합이 위험요인 조사와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와 구제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체계에 협약의 원칙을 반영하고 실현되도록 전개할 것입니다.
- 현장의 문제를 노동조합의 요구로 만들고 법과 제도의 변화로 이어가겠습니다. 정부와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고, 철저히 감시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한 사람도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홀로 고립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을 넘

어, 노동자의 일상과 삶의 변화와 노동조합의 연대와 보호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폭력과 괴롭힘 없는 일터는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정부는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ILO 제190호 협약을 즉각 비준하십시오. 비준을 미루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국민생명 보호의 책임과 정의를 미루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가 존엄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날까지 현장에서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콜센터 상담노동자에 대한 젠더폭력 강요를 멈추고 대책 마련하라

김석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공동본부장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공동본부장 김석우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우리는 생계를 잇고,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매일 일터로 향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에게 일터는 안전한 공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폭력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생존마저 위협받는 끔찍한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희망연대본부에는 지자체 공공부문과 유료방송통신서비스 고객을 응대하는 콜센터지부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분들의 수화기 너머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현실을 통해, 'ILO 190호 비준'이 왜 이토록 시급한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콜센터 현장의 다수는 여성 노동자입니다.
다수가 여성이니, 조금은 더 여성 친화적이고 성평등한 일터일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성혐오와 폭력이 가장 선명하고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바로 콜센터 노동현장입니다.
여성 상담사가 응대할 때면, 고객의 언어폭력 수위와 태도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쓸데없는 말을 길게 늘어놓고 비아냥거리는 고객을 장시간 상대하며, 상담사들은 극한의 감정노동에 시달립니다. 특정 상담사를 집요하게 찾으며 수차례 전화를 거는 악성 고객이 있어도, 회사의 적극적인 차단이나 보호 조치는 없습니다.
상담사들은 반복되는 가해자의 욕설과 성적 공격을 고스란히 참아내야만 합니다.
참기 힘든 폭력에 노출된 직후에도, 응대율과 실적 압박 때문에 억지로 감정을 누르고 곧바로 다음 고객의 전화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 폭력의 1차 가해자는 악성 고객입니다.

하지만 가해행위를 온전히 막지도, 피해자를 치유하지도 않는 이 끔찍한 환경을 방치한 2차 가해자는 바로 '회사'이며,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방관하는 '정부'입니다.

폭력은 수화기 너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빈틈없이 들어찬 상담실에 여성 화장실은 고작 두 칸뿐이라 매번 눈치싸움을 해야 합니다. 생리휴가를 쓰면 유별난 사람 취급을 받고, 아이를 위해 연차를 내면 "너만 애 키우냐"며 유난 떤다는 핀잔이 돌아옵니다. 상급자의 폭언과 성인지 감수성 없는 일상적 업무환경 역시,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어야 하는 또 다른 폭력입니다.

2019년, 국제노동기구(ILO)는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근절에 관한 제190호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고객이나 민원인 등 제3자에 의한 폭력과 성희롱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국가와 사용자의 책임을 명시했고, 원하청을 불문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고객 응대'라는 미명 하에 젠더폭력을 강요당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협약 비준을 미루며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콜센터 여성 상담사들은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라 정당한 노동을 하는 노동자입니다. 폭력을 견디는 것은 결코 노동자의 의무가 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상담사라는 이유만으로 성희롱과 폭언을 감내하는 일이 없도록,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일터의 젠더폭력을 예방하고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가는 지금 당장 ILO 제190호 협약을 비준하라!

모든 일터에서 젠더폭력을 뿌리 뽑을 실질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우리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역시, 여성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성평등과 존엄을 지키며 일할 권리를 쟁취하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연대하고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발언] ILO 190호 협약 비준, 성희롱을 참지 않아도 되는 일터를 위하여

이현미 서울본부 본부장

반갑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이현미입니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성희롱과 폭력,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일할 권리!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요구입니까? 수많은 노동자가 폭력과 괴롭힘에 노출된 채 일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상담사들은 전화기 너머 쏟아지는 성희롱과 성적 모욕, 폭언을 견디며 일합니다. 고객 응대가 업무라는 이유로 참고 넘길 것을 강요받습니다.
사회서비스와 돌봄노동자들은 이용자의 집이라는 고립된 공간에서 원치 않는 신체접촉과 성희롱, 폭언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피해를 호소해도 이용자와의 관계를 이유로 참으라는 말을 듣고,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 문제를 제기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고객의 부당한 요구와 괴롭힘에 맞서고 싶어도 낮은 평가와 일감 중단, 계약해지에 대한 불안 때문에 침묵을 선택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왜, 피해를 당한 노동자가 오히려 일자리를 걱정해야 합니까? 왜,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참고 견디고, 결국 일터를 떠나야 합니까?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은 외면하면서, 폭력과 괴롭힘의 고통을 노동자 개인에게 떠넘기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특히 여성노동자가 다수인 돌봄과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성희롱과 괴롭힘마저 노동의 일부처럼 취급되는 현실,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ILO 190호 협약 비준이 절실합니다!
ILO 190호 협약은 고용형태나 계약관계에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이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국제노동기준입니다. 일터가 사업장 안이든, 이용자의 집이든, 거리와 온라인 공간이든 노동자의 안전과 존엄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희롱 예방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노동자가 폭력과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노동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ILO 190호 협약 비준 추진을 국정과제로 내걸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ILO 190호 협약을 조속히 비준하고, 모든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십시오!

사용자의 예방과 보호 책임을 분명히 하고, 고객과 이용자 등 제3자에 의한 폭력과 괴롭힘에도 책임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 노동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생계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터의 안전은 단지 사고 없이 퇴근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희롱을 참지 않아도 되는 일터, 폭언과 괴롭힘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일터, 피해를 호소했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지 않는 일터! 그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진정한 일터의 안전입니다.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일부 노동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닙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노동권입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사회서비스 노동자, 돌봄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가 젠더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롭게 일할 권리를 쟁취하고, 그 권리가 현장에서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투쟁!

[발언] 우리의 노동에도 사람이 있다

유승현 사회복지지부 노인생활지원사분회 분회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생활지원사분회 분회장 유승현입니다.
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로 7년째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노동에도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지원사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안전을 살피고,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외로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우리는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 가족보다 더 자주 만나는 소중한 이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돌봄을 제공하는 생활지원사들의 노동환경은 과연 안전하고 존중받고 있을까요?
첫째, 폭염과 혹한 속에서 이루어지는 방문 노동입니다.
한여름 뜨거운 햇볕과 겨울철 매서운 추위, 눈길과 빙판길을 견디며 어르신 댁을 찾아갑니다. 어르신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생활지원사의 안전 역시 중요합니다. 폭염과 폭설 등 극한 기후에는 재택근무와 전화 안부 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명확한 업무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기본적인 생리현상조차 자유롭게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화장실을 찾아 헤매고, 화장실에 갈 수 없을까 봐 물조차 마음껏 마시지 못합니다. 물을 마시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은 특별한 요구가 아닙니다. 노동자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입니다.
셋째, 폭언과 성희롱, 성추행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대상자의 욕설과 폭언뿐 아니라 성희롱과 성추행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를 어르신이라는 이유로 참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르신을 존중하는 것과 생활지원사의 인권을 포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를 보호할 실질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합니다.
넷째, 보호자와의 갈등과 생활지원사에 대한 인식 개선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책임과 역할을 가진 전문 돌봄 노동자입니다. 우리의 노동과 시간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며 느낀 또 하나의 어려움은 어르신들과의 이별입니다.
매일 안부를 묻고 정을 나누던 어르신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면 그 빈자리는 마음의 상처로 남습니다. 생활지원사의 노동에는 업무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과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돌봄을 받는 어르신의 인권이 소중하다면 돌봄을 제공하는 생활지원사의 인권도 똑같이 소중합니다.

우리에게도 가족이 있고, 건강이 있고, 지켜야 할 삶이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극한 기후에 안전한 업무 기준을 마련하고,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보장해야 합니다.
폭언과 성희롱, 성추행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생활지원사를 전문 노동자로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르신을 돌보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우리를 돌봐줄 차례입니다.
어르신의 존엄한 노후를 지키는 것처럼 생활지원사의 존엄한 노동도 지켜져야 합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의 노동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동에도 존엄이 있습니다!
생활지원사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라!
생활지원사의 노동을 존중하라!
우리의 목소리와 연대로 우리의 권리를 지켜냅시다.
감사합니다.

[발언] 돌봄현장의 젠더폭력 예방교육과 신고체계를 강화하라

김기순 의료연대본부 사회서비스지부 인천활동지원기관분회 분회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하고 있는 돌봄노동자 김기순입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일터에서 겪고 있는 젠더폭력과 괴롭힘의 현실을 알리고, 모든 노동자가 폭력과 괴롭힘 없이 일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필수적인 돌봄노동자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노동자들의 안전과 존엄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일터는 대부분 이용자의 가정이나 지역사회입니다. 사업주의 관리와 감독이 미치기 어려운 공간에서 노동자들은 혼자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성희롱과 성추행, 성적인 언행, 폭언과 인격모독 등 다양한 폭력과 괴롭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피해를 입어도 쉽게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문제를 제기하면 이용자와의 관계가 나빠질까 걱정해야 하고,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용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고, 성희롱이나 폭언을 당해도 돌봄노동이라는 이유로 참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돌봄을 하는 사람이 그 정도는 이해해야지.",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조금만 참아 달라." 이러한 말들은 돌봄노동자에게 폭력과 괴롭힘을 감내하도록 강요하는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돌봄은 누군가의 부당한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용자의 권리가 중요하듯 노동자의 안전과 존엄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용자의 권리와 노동자의 권리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장되어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돌봄은 국가가 제도를 설계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공적 서비스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책임을 개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노동자가 스스로 해결하거나 일터를 떠나야 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2019년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ILO 190호 협약은 모든 사람이 폭력과 괴롭힘 없는 일의 세계를 누릴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젠더기반폭력과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사업주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도 이 협약을 비준하고 실질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돌봄현장의 젠더폭력과 괴롭힘 실태를 조사하고, 예방교육과 신고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피해 노동자가 불이익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업무 분리와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폭력과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에 대응할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용자의 가정과 같이 사업장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빠짐없이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돌봄노동자도 존중받아야 할 노동자입니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이유로 폭력과 괴롭힘을 감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모든 돌봄노동자가 폭력과 괴롭힘 없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십시오! 투쟁!

[발언] '여성폭력이 허용되거나 정당화될 수 있는 변명은 없다'

박민정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팀장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에서 활동하는 도도입니다. 다양한 현장에서 왜 ILO 190호 협약 비준이 필요한지 얘기해주셨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2025년, 노동절을 맞아 '일'과 연관된 여성폭력 상담 사례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성폭력 피해 내담자들을 지원하며 현장에서 마주한 상담을 통해 여성폭력이 '일'과 얼마나, 어떻게 연관되어 있으며 우리 삶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2024년 한해 동안 폭력피해가 있는 초기상담 중 '일'과 연관된 피해상담은 전체 상담의 20%를 차지했습니다. 5건의 상담 중 1건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그러나 이는 최소한의 수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과 연관된 여성폭력 피해는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아 일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고 지나치게 됩니다.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이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라고 여기는 사회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일의 세계'에 만연한 여성폭력은 공론화되기 어렵습니다.
여성폭력이 어디에서나 발생하듯, 우리 삶의 밀접한 부분인 '일의 세계'에서도 당연히 여성폭력은 발생합니다. 일터에서 공유된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일로 인한 위계관계를 이용하거나, 쉽게 일터를 옮길 수 없는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 혹은 일터에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나 주변인의 안전에 끼치는 위협도 적지 않습니다. '일터'라는 물리적인 공간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일'과 연관된 여성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일'은 중요한 경제적 자립의 발판이자, 사회적으로 연결되는 장입니다. 그렇기에 일의 세계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의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됩니다. 정말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일'과 여성폭력을 연결하여 사고하고, 여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일의 세계'를 마련해나가는 움직임을 우리 사회에서도 하루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2019년 ILO의 협약 이후, 2026년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서는 각국 정부에서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을 철폐하고 사회 보호를 강화하며, 일의 세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구제 수단과 사법 접근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해외에서는 여성폭력 피해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와 지원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의 대책마련은 협약 비준은 그 시작일 뿐이며 '일의 세계'에서의 여성폭력 종식을 위한 범정

부적 전략과 대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내린 결과일 것입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ILO 협약 비준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이라는 과제에서도 '일과 연관된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내용의 정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부가 협약 비준에만 멈추지 말고, 통합적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UN에서는 올해 '여성·소녀 폭력 종식을 위한 연대'를 주제로, #NoExcuse, '여성폭력이 허용되거나 정당화될 수 있는 변명은 없다'라는 캠페인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여성폭력을 허용하지 않는 일에, 모든 사람이 폭력과 괴롭힘 없는 일의 세계를 누릴 권리를 실현하는 일에 더 이상의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도 노동자라는 당연한 말처럼, 모든 사람이 폭력과 괴롭힘 없는 '일의 세계'를 누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단결에 한국여성의전화도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발언]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일터 안전보건체계를 모든 현장에 구축하라!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안녕하세요, 노동자 건강권 운동을 하고 있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조건희 활동가입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주셨지만, ILO 190호 협약이 말하는 핵심을 다시 짚어야겠습니다.
- 젠더 기반 폭력을 사업주가 관리, 감축해야 할 유해위험요인으로 설정할 것
- 규제의 출발점을 피해자의 사후 신고에서 사용자의 사전 예방 의무로 이동할 것
- 근무 장소,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노동하는 사람을 포괄할 것
- 일터의 유해위험요인을 드러내고, 개선해가는 모든 과정에 현장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개입할 것

그러나 이러한 원칙들이 적용되는 데에 방해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사업주는 노동자 보호라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 사장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 역시 많습니다. 법적 공백 역시 심각합니다. 이들에게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어떤 법도 사실상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례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고용관계가 있는 때에만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사업주가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제재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주 책임의 공백은, 노동세계에서의 폭력 및 괴롭힘이란 유해위험요인을 조직의 문제로 접근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피해 노동자는 개인 차원으로 홀로 감당하거나, 떠나거나 양자택일에 놓일 뿐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올해 골프장 캐디, 코디코닥 소속 가전 방문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캐디의 경우 최근 1년 사이 88%가 성희롱을, 68%가 성추행을 경험했습니다. 코디코닥 가전방문 노동자 역시 원치 않는 성적 신체접촉이나 성희롱 경험 34.2%, 위협이나 괴롭힘 경험 29.5%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두 곳 모두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회사의 안전보건조치는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고객과 노동자, 노동자와 노동자 개인 갈등의 문제로 축소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고객이나 관리자 등으로 인한 폭언, 성희롱 등은 일상적이었고, 일상적이었기에 무뎌졌지만, 이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는 개인 차원으로만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괴롭힘 등을 경험한 캐디의 50% 가까이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나서도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사업주가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은 많습니다. 관리자, 고객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을 노동자들에게 안내하는 것, 위험 상황에서 노동자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피해 후 유급휴가나 전환배치 등 치료와 심리적 회복을 보장하는 것 등이 필요합니다. 이들 모두는 연결되는 문제기도 합니다.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은 이러한 문제들을 계속 제기하고, 현장을 바꿔왔습니다. "조합원은 폭언, 성희롱, 폭력 등 고객의 유무선상 문제 행동 발생시 즉각 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조합원은 이를 상급자 또는 회사에 즉각 보고하여야 하며, 상급자 또는 회사는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는 조합원의 이러한 업무 중단을 이유로 해당 조합원이나 소속 사무소에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의 단협을 쟁취한 한 특고 노동조합 사례가 이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례를 계속 확대하는 것이 앞으로도 필요합니다.

더하여, 저희는 예외의 보편화를 심각히 우려합니다. 어떠한 명분이든, 권리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순간, 적용제외 사례는 급속히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권리를 확대해가는 것과 더불어, 최저기준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190호 협약을 적용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이유기도 합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노동세계의 폭력과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현장을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바꾸기 위한 투쟁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젠더기반 폭력과 괴롭힘을 관리 감축해야 할 일터의 유해위험요인으로 설정하라!
-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일터 내외 안전보건체계를 모든 현장에 구축하라!
-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5인미만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ILO 190호 협약 적용하라!